

이원금속 촉매의 접촉개질 반응 성능 연구

김영길, 연태현, 이재의
아주대학교 공업화학과

Studies of Bimetallic Catalysts Performance in Naphtha Reforming

Young Kil Kim, Tae Hun Yeon, Jae Eui Yie
Dept. of Applied Chem. Ajou Univ., Suwon 441-749, Korea

1. 서론

접촉개질 공정은 주요한 석유 정제 공정중의 하나이며 저 옥탄가(40~60)의 나프타를 고 옥탄가(90~100)의 가솔린으로 전환시켜 휘발유의 고급화를 가능케 하며, 특히, 수소를 다량 생산하여 탈황, 탈질등의 공정에 공급함으로써 석유화학 제품 고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50년과 1960년에서는 접촉개질 반응에 단일 금속인 Pt/Al₂O₃ 촉매의 사용이 지배적 이었으나 1970년에 들어와서는 Pt-Ir과 Pt-Re의 이원금속 촉매가 단일금속 Pt를 대신하게 되었다[1].

이들 이원금속 촉매는 Pt 단일금속일때 보다 촉매 안정성과 고 옥탄가 생성 물로의 선택성이 현격히 증가 하였다.

더군다나, 이들의 작용은 중진제의 종류에 따라, 반응하는 탄화수소의 종류 및 반응 조건에 따라 중진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Sn[2], Mo[3-5]등의 첨가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 각각 수소화 및 탈수소화의 촉진, 가수소분해 반응성의 증진등을 통하여 반응성 및 선택성 증진이나, 촉매 비활성화의 억제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같이 그 동안 연구되어온 이온 금속쌍들은 매우 많으며, 그들 대부분은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표면 구조등의 특성차이를 유발시켜 모형반응의 반응성과 연관지은 연구가 많았고, 이들의 표면 구조 및 전자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단편적이고 반응조건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의 특성확인이 많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잘 분산된 금속 담지 촉매 연구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EXAFS[6-7]와 ¹²⁹Xe-NMR[8-9]을 이용하여 Pt-Mo/γ-Al₂O₃ 촉매의 특성을 확인하고, n-헥산의 반응성 연구로부터 접촉개질 촉매의 성능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2-1. 촉매제조

2-1-1. Pt-Mo/γ-Al₂O₃

함침법으로 H₂PtCl₆·6H₂O (Shinco Pure Chemicals, 37%)를 γ-Al₂O₃에 함침

시킨 후 393K에서 2시간 건조시킨 다음, 흐름반응기에 넣은뒤 O_2 ($>1L \text{ min}^{-1}\text{g}^{-1}$)를 흘리면서 298K에서 773K까지 승온 시키고 나서 2시간 더 소성시켜 1 wt% Pt/ γ -Al₂O₃와 3 wt% Pt/ γ -Al₂O₃ 촉매를 제조하였다.

2-1-2. Mo/ γ -Al₂O₃

(NH₄)₆Mo₇O₂₄. 4H₂O(Aldrich)를 사용하여 Pt 촉매 제조와 동일하게 실시하여 1 wt%, 2wt% 그리고 3 wt% Mo/ γ -Al₂O₃를 제조하였다.

2-1-3. Pt-Mo/ γ -Al₂O₃

위에서 제조한 Mo 촉매에 Pt 함량이 각각 3 wt%함유 하도록 H₂PtCl₆. 6H₂O를 함침시키고 촉매의 전처리를 동일하게 실시하여 Pt 함량이 3 wt%인 Pt-Mo/ γ -Al₂O₃ (Pt/Mo= 1, 2, 3) 이원금속 촉매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촉매제조 방법을 달리하여 1 wt% Pt-Mo/ γ -Al₂O₃촉매에 (NH₄)₆Mo₇O₂₄. 4H₂O를 함침시켜 Pt 함량이 1 wt%인 Pt-Mo/ γ -Al₂O₃ (Pt/Mo= 2, 10, 100) 이원금속 촉매를 제조하였다.

2-2. n-C₆H₁₄의 전환반응

777K에서 소성된 촉매를 N₂를 흘리면서 298K 까지 냉각한 다음에 H₂ ($>400 \text{ ml min}^{-1}\text{g}^{-1}$) 를 흘리면서 298K에서 773K 까지 승온시키고 나서 773K에서 2시간 더 환원처리하였다. 이 온도에서 반응물을 24ml/min(H₂/HC=10)으로 일정하게 흘리면서 n-C₆H₁₄의 탈수소고리화 반응을 실시하였다. 반응물로는 n-C₆H₁₄, H₂, He을 사용하였다.

2-3. ¹²⁹Xe-NMR 실험

¹²⁹Xe-NMR 실험은 Ryoo등이 개발한 방법에 따랐다[9]. ¹²⁹Xe핵에 대한 공명주파수를 83.0MHz로 하여 Bruker AM 300 분광기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얻었다.

2-4. EXAFS 실험

X-Ray 흡수 측정은 Tsukuba(Japan)에 있는 가속에너지가 2.5GeV이고 Ring current가 200~300mA인 KEK-PF(Phton Factory of National Laboratory for High Energy Physics) 10B의 Beam line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γ -Al₂O₃에 담지된 Pt와 Mo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Pt함량이 3wt%인 Pt-Mo/ γ -Al₂O₃(Pt/Mo=1, 2, 3)촉매들을 EXAFS와 ¹²⁹Xe-NMR로 분석하였다. Mo함량에 따른 Pt-O, Mo-O, 그리고 Pt-Pt 거리 및 배위수는 Pt/Mo비에 의존적이지는 못하였지만 기준값인 Pt-O(0.202nm)와 Mo-O(0.179nm)에 비해서 Pt-O와 Mo-O의 거리는 각각 0.216~0.219nm와 0.168~0.170nm로 변화 한 것으로 보아

Pt와 Mo사이에는 약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 3번째 shell에 대한 curve fit 값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결론을 짓기에는 의문 스럽다.

^{129}Xe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얻은 화학적이동값을 보면 1 wt% Mo/ $\gamma\text{-Al}_2\text{O}_3$ 는 70.2ppm으로 $\gamma\text{-Al}_2\text{O}_3$ 의 67ppm에 거의 일치하므로 Mo은 Xe과 상호작용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Pt/Mo=3은 221ppm, Pt/Mo=2는 193ppm 그리고 Pt/Mo=1에서는 157ppm으로 Mo함량이 증가 할 수록 화학적이동값이 감소하므로 Pt-Mo/ $\gamma\text{-Al}_2\text{O}_3$ 측매는 Mo이 Pt를 감싸는 이원금속 크러스트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추측되며, Samant[5]등이 Pt-Mo/Y 이원금속 측매의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Pt-Mo 이원금속 크러스트의 구조는 n-헥산의 탈수소고리화 반응의 활성을 상당히 억제 하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즉, 단일금속의 3 wt% Pt/ $\gamma\text{-Al}_2\text{O}_3$ 측매가 Pt함량이 3 wt% 인 Pt-Mo/ $\gamma\text{-Al}_2\text{O}_3$ 이원금 속 측매들 보다도 전환율 및 벤젠 생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Mo의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Mo이 Pt을 감싸게 되어 Pt의 반응 활성점을 거의 다 덮거나 혹은 전자적 및 구조적으로 Pt에 영향을 미쳐서 Pt-Ir, Pt-Re, 그리고 Pt-Sn등의 이원금속 측매에서 발생하는 상승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o의 함량이 많은 경우는 Pt의 반응 활성을 억제 시키므로 Mo의 함량을 낮추어서 제조한 1 wt% Pt/ $\gamma\text{-Al}_2\text{O}_3$ 측매와 Pt함량이 1 wt% 인 Pt-Mo/ $\gamma\text{-Al}_2\text{O}_3$ (Pt/Mo=2, 10, 100) 이원금속 측매들의 n-헥산의 전환 반응을 실시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Pt/Mo의 비가 증가 할 수록 즉, Mo의 함량이 줄어들수 록 반응 활성은 증가 되어 Pt/Mo=100인 이원금속 측매에서는 단일금속의 Pt측 매 보다도 n-C₆H₁₄의 전환율 및 벤젠 생성량이 약 2배 정도 증가되었으나 벤젠으로의 선택성은 감소 하는 것으로 보아 Mo의 함량이 작을 수록 가수소분해 반응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Pt-Mo 이원금속 측매의 연구에서 보면 Pt와 Mo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Mo의 함량이 큰(Pt/Mo<10) 경우에는 Mo이 Pt의 반응 활성 점을 덮게되어 Pt의 반응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Mo의 함량이 작은(Pt/Mo>100) 경우에는 Mo이 Pt의 반응활성점을 가리지 않는 대신에 Pt와 Mo사이에 더 강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상승효과가 유발되어 n-헥산이 벤젠으로 전환되는 탈수소고리화 반응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참고문헌

1. Sinfelt, J. H.: "Bimetallic Catalytisis-Discoveries, Concepts, and Application", Willy New York, (1983).
2. Dautzenberg, F. M., Helle, J. N., Biloen, P. and Sachler, W. M. H.: *J. Catal.*, **63**, 119(1980).
3. Tri, T. M., Candy, J. P., Gallezot, P., Massardier, J., Primet, M., Vedrine, and Imelik, B.: *J. Catal.*, **79**, 396(1983).

4. Yashu, Y., Xiebian, G., Huimin, L., Maicun, D. and Zhiyin, L.: "Preparation of Catalysis IV", Elsevier, Amsterdam-Oxford-New York, 701(1987).
5. Samant, M. G., Bergeret, G., Meitzner, G., Gallezot, P. and Boudart, M.: *J. Phys. Chem.*, **92**, 3547(1988).
6. Lagarde, P. and Dexpert, H.: *Adv. Phys.*, **33**(6), 567(1984).
7. Sinfelt, J. H., Via, G. H. and Lytle, F. W.: *Rev. Sci. Eng.*, **26**(1), 81(1982).
8. Cho, S. J., Jung, S. M., Shui, Y. G. and Ryoo, R.: *J. Phys. Chem.*, **96**, 9922(1992).
9. Ryoo, R.: *J. Korean Ind. & Eng. Chem.*, **2**, 1(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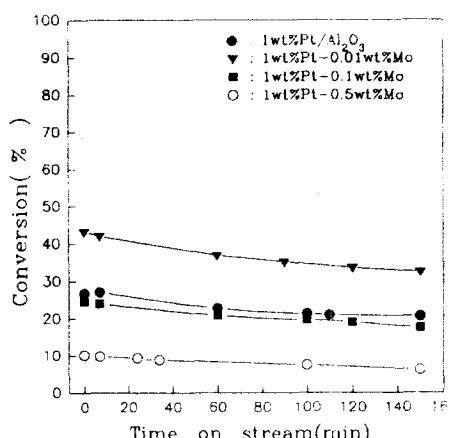


Fig. 1 Conversion of n-hexane as a function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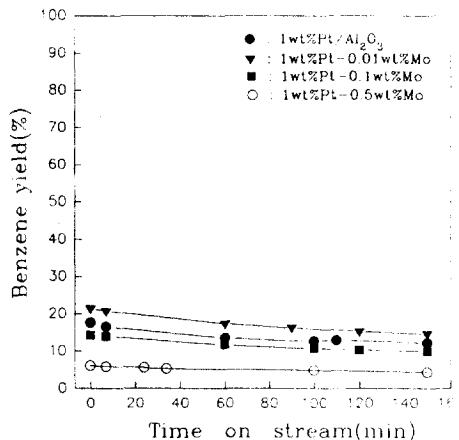


Fig. 2 Benzen yield of n-hexane as a function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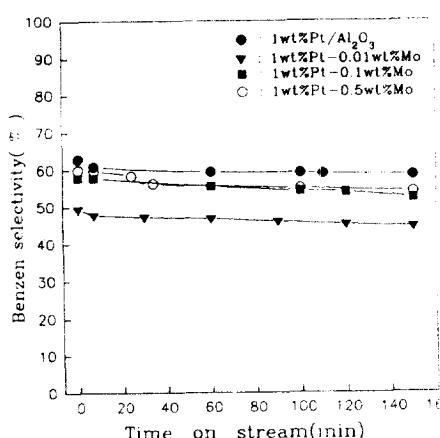


Fig. 3 Benzene selectivity of n-hexane as a function of time